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03-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쓸쓸한 죽음, 고독사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법 필요

2024. 10. 30.

담당자 김보미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56

e-mail | kimbm@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쓸쓸한 죽음, 고독사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법 필요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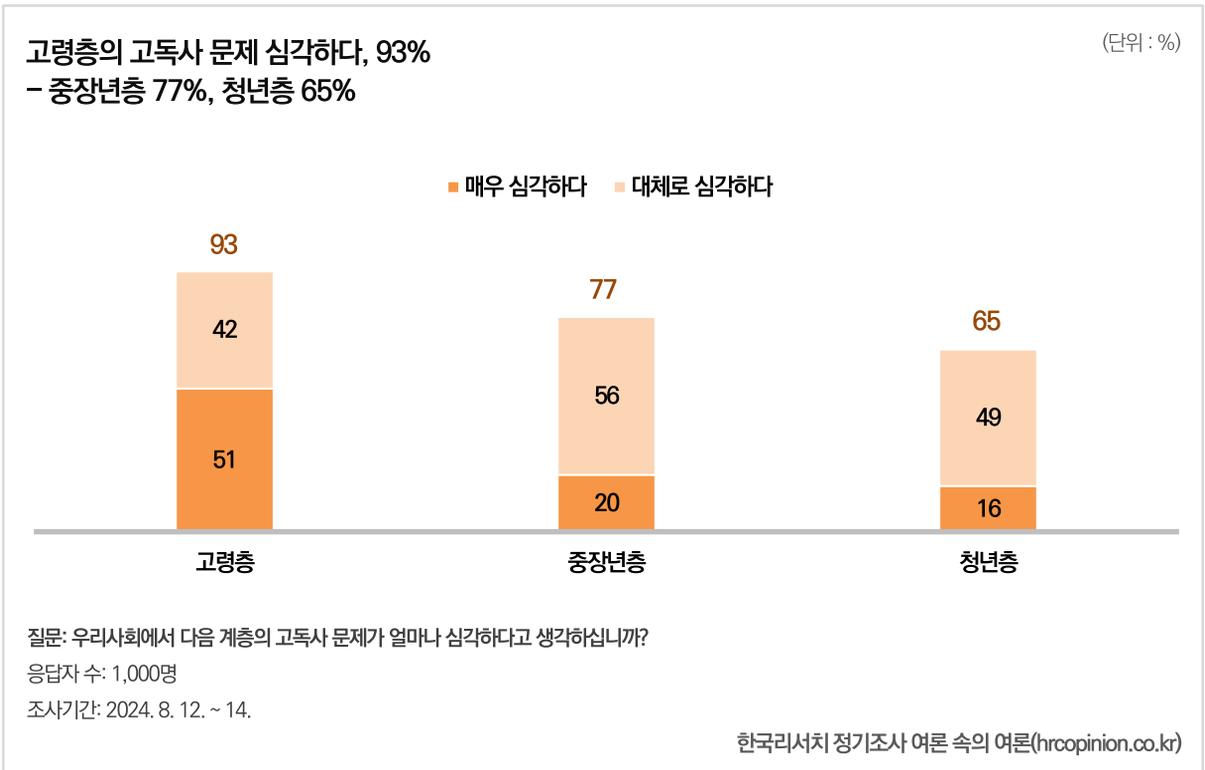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9명으로, 하루 평균 9명이 고독사를 한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독거가구의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흐름을 고려하면, 고독사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위험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은 고독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8월 12일 ~ 8월 14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 고령층의 고독사 뿐 아니라 중장년층, 청년층의 고독사 역시 심각하다고 인식한다(고독사 문제 ‘매우 심각하다’ 고령층 93%, 중장년층 77%, 청년층 65%).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는 ‘비혼, 자녀없는 가구 증가 등에 따른 1~2인 가구의 증가’를, 50대와 60대는 ‘삶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부족’을, 70세 이상은 ‘가족 관계의 단절 심화’를 꼽는다.
- 35%는 요즘 고독사를 할까봐 걱정된다(매우 6%+대체로 29%), 61%는 언젠가 나도 고독사를 할 수 (매우 12%+대체로 49%)고 생각한다. 특히 취약 계층(‘매우 그렇다’ 비율- 비정규직 21%, 기타 주거형태 2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8%),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사람(49%),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34%)은 언젠가 본인이 고독사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다.
- 92%는 고립감과 심각한 외로움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다. 극복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87%)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84%)한다는 인식이다.

1

고독사 심각성 인식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편적 인식 형성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고령층의 고독사 문제가 매우 혹은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93%에 이르고, 특히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반(51%)을 차지한다.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도 77%가 동의하며, 20%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년층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65%,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이 16%이다.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친 문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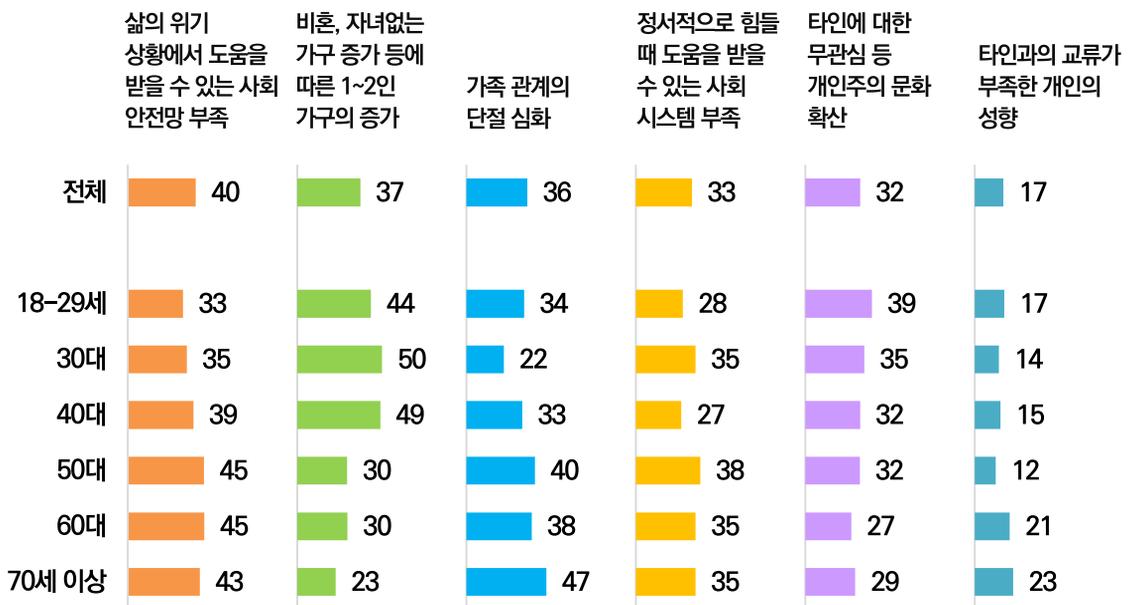


40대 이하는 '1~2인 가구의 증가', 50-60대는 '삶의 위기에서의 사회 안전망 부족', 70대 이상은 '가족과의 단절'을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아

고독사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부재, 초핵가족화, 개인화 경향 등 다양한 이유를 별다른 차이 없이 비중 있게 꼽았다. 고독사 문제가 복합적인 사회 변화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연령대별로 원인 진단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20대부터 40대까지는 '비혼, 자녀없는 가구 증가 등에 따른 1~2인 가구의 증가'를, 50대와 60대는 '실직, 파산, 장애, 질병 등 삶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부족'을, 70세 이상은 '가족 관계의 단절 심화'를 고독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40대 이하 '1~2인 가구의 증가', 50-60대 '삶의 위기에서의 사회 안전망 부족'
70대 이상은 '가족과의 단절'이 가장 큰 원인

(단위: %)



질문: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8. 12.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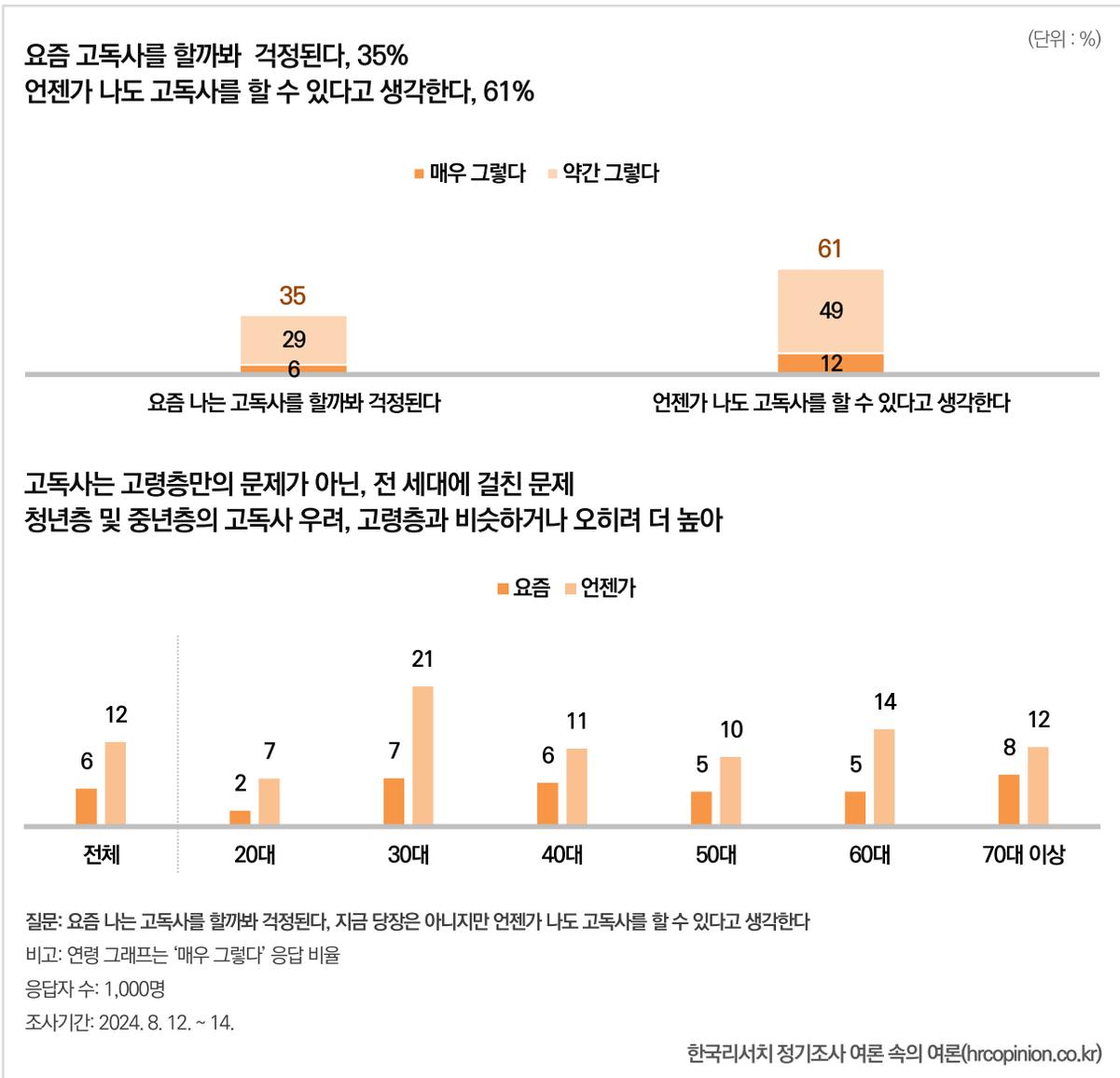
2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인식

나는 '요즘' 고독사를 할까봐 걱정된다, 35%

국민들은 고독사를 사회현상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직면한 문제로 인식한다. 전체 응답자의 35%는 '나는 요즘 고독사를 할까봐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6%는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다. 61%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도 고독사를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도 12%나 된다. 10명 중 1명은 언젠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향후 고독사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연령층은 30대에서 21%로 가장 높았다(매우 그렇다). 30대는 요즘 고독사를 할까봐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도 7%로, 70세 이상(8%) 다음으로 높다. 고령층의 고독사 못지않게 청년층의 고독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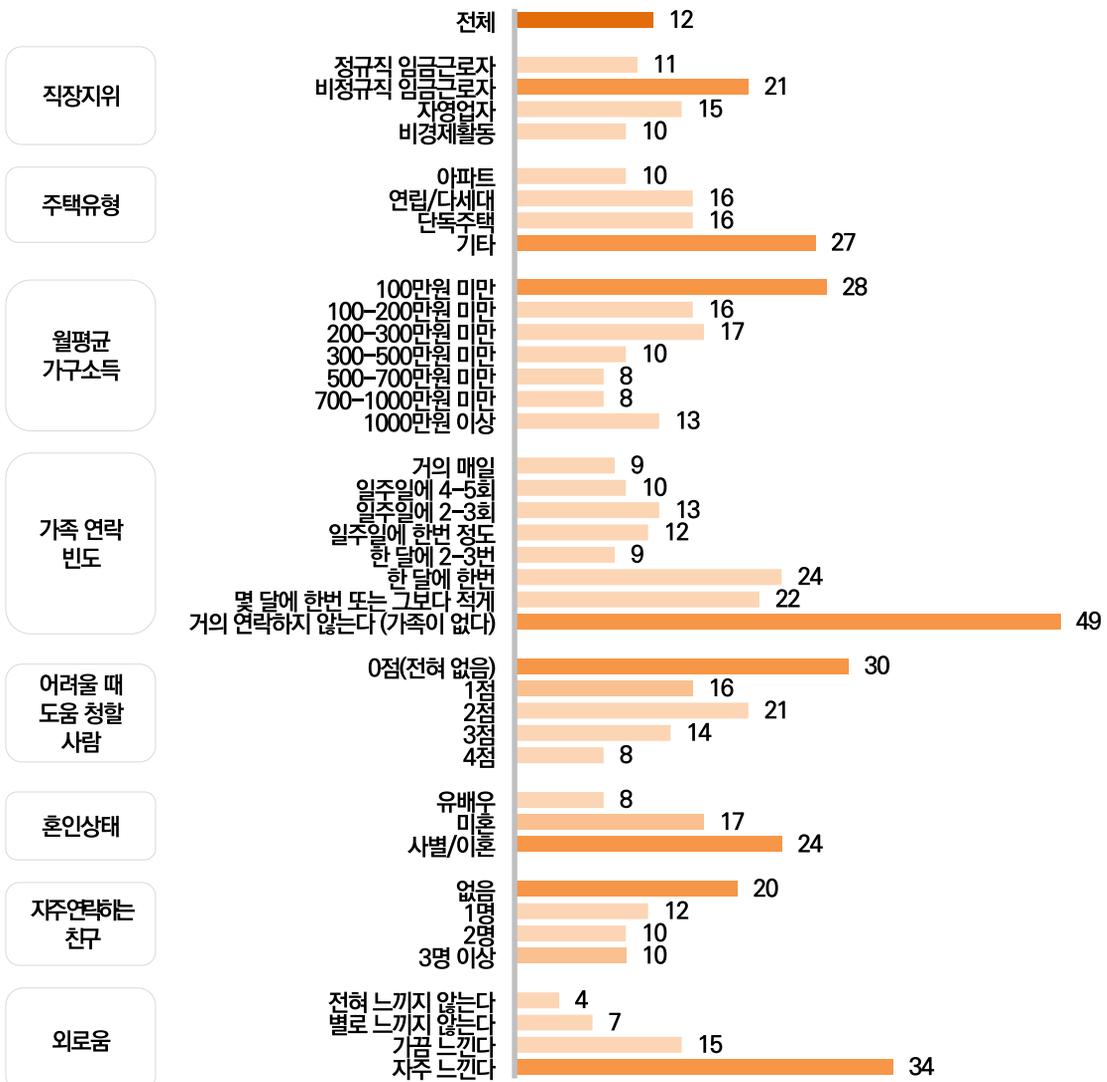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고립감이 높은 집단에서 본인의 고독사 우려 높아

본인의 고독사에 대한 우려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21%), 기타 주거형태 거주자(27%),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28%) 등 고용과 주거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언젠가 본인 고독사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다.

취약 계층의 고독사 우려, 일반국민의 2배

(단위 : %)



질문: 언젠가 나도 고독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고: -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어려울 때 도움 청할 사람'은 심하게 아플 때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할 때/큰 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실직하여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있는지 질문함.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보고 네 개의 문항에 대해 도움을 청할 사람의 합이 0이면 0점(전혀 없음), 1이면 1점, 2면 2점, 3이면 3점, 4면 4점으로 분류함

- '자주 연락하는 친구'는 '귀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로 질문함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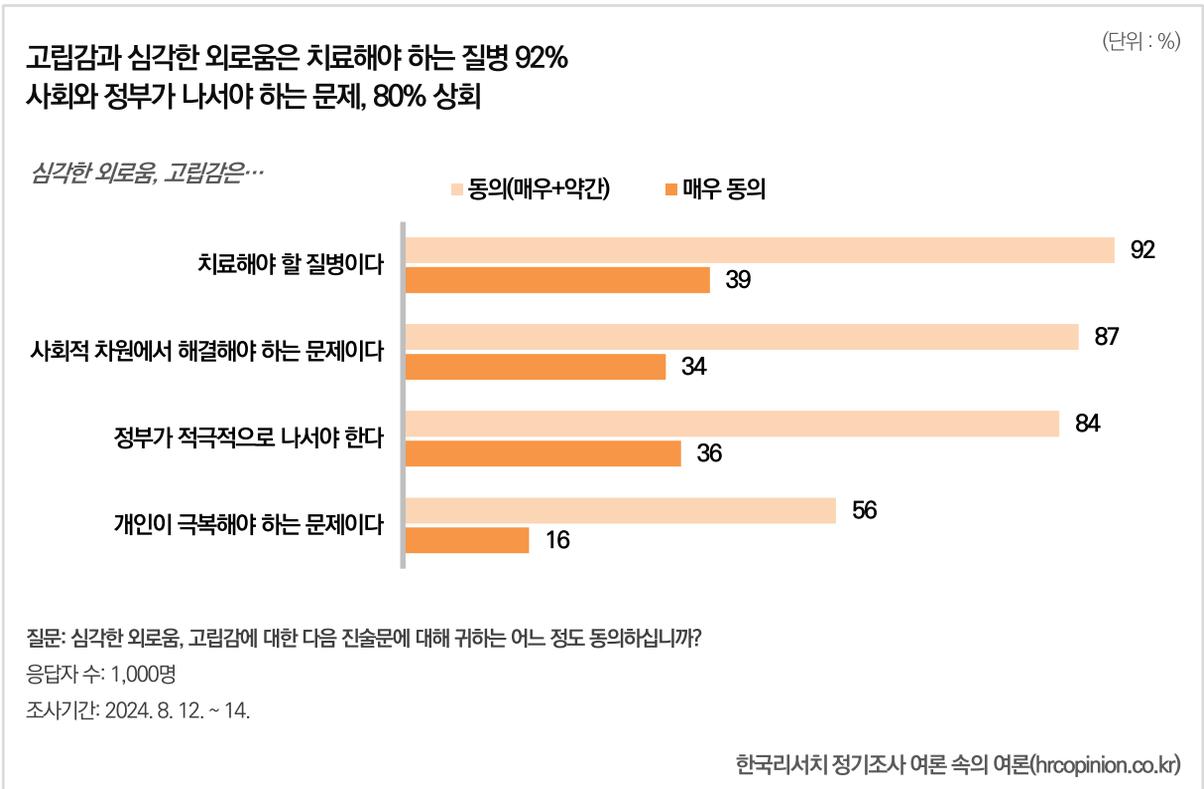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8. 12. ~ 14.

3

고립감과 고독사 예방

고립감과 심각한 외로움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87%
정부가 나서야, 84%

그렇다면 고립감의 극복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두어도 되는 것일까. 우리 국민의 87%는 고립감과 심각한 외로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응답했다. 개인의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84%였다. 응답자의 92%는 고립감과 심각한 외로움을 질병이라고 인식하여,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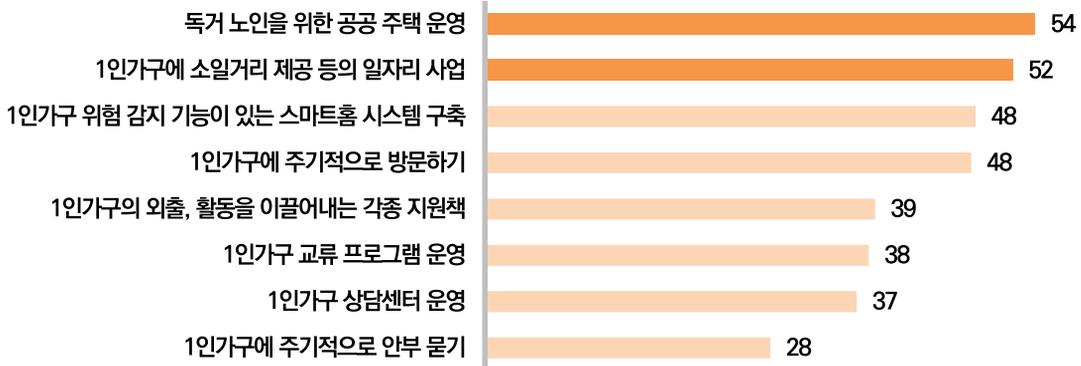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주택(54%), 소일거리 제공 등의 일자리 사업(52%)이 고독사 예방에 '매우 도움' 될 것

국민들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고독사 예방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독거 노인을 위한 공공주택(54%)', '소일거리 제공 등의 일자리 사업(52%)'을 꼽는다.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은 빈 집을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 독거노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고독사를 막는데 도움을 준다. 소일거리 참여 사업은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고립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위험감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48%)', 우유 배달이나 반찬 전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주기적으로 방문하기(48%)' 등이 고독사 예방에 '매우 도움' 되는 정책으로 꼽혔다.

고독사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
독거 노인을 위한 공공 주택 54%, 소일거리 제공 사업 52% 등

(단위 : %)



질문: 귀하는 다음 정책이 혼자 사는 사람의 고독사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매우 도움된다' 응답 비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8. 12.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우리나라 고독사 수는 5년 사이에 천 여명이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2021년에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른바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 상담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상황에서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행정조사로 모두 발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작년까지는 평범했던 집이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등으로 위기가구나 사회적 고립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확충과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 포괄적인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7월 기준 전국 93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3,249명, 조사참여 1,402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3%, 참여대비 71.3%)
조사일시	• 2024년 8월 12일 ~ 8월 1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